새내기 공무원들의 '친절 미소' 청년실업 100만 시대에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지난달 30일 신규 임용된 북구청 새내기 공무원 50명이 21일 광주시 북구 중흥동 KT 전남본부에서 열린 '신규 공무원 친절교육'에서 주민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한 '친절 미소'를 짓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 마이스터고 입학 경쟁률 4대1

마이스터고인 광주자동화설비공업고등학교(옛 광주정보고)의 내년 입학 경쟁률이 4대1을 기록했다.

광주시교육청은 21일 "최근 원서를 마감한 결과 일반전형(56명)과 가업 승계자 등 특별전형(24명) 등 모두 80명 모집에 320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지원자 대부분이 중학교 내신 성적 중상위권 이상으로 마이스터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기대를 반영했다.

지역 전문계 고교 경쟁률이 일부 학과를 제외하곤 미달이거나 겨우 정원을 채웠던 점과 비교하면 파격적인 일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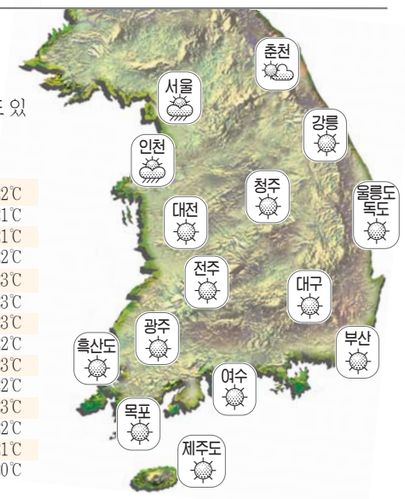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6시 46분 해짐 17시 49분 달뜸 10시 45분 달짐 20시 24분

가을바람 억새는 춤추고

아침에 안개가 끼는 지역도 있겠으며 대체로 맑겠다.

광 주	구름 조금	10/22℃
목 포	구름 조금	11/21℃
여 수	구름 조금	13/21℃
완 도	구름 조금	10/22℃
구 례	구름 조금	6/23℃
해 남	구름 조금	6/23℃
장 흥	구름 조금	6/23℃
고 흥	구름 조금	8/22℃
순 천	구름 조금	9/23℃
영 광	구름 조금	9/22℃
진 도	구름 조금	9/23℃
전 주	구름 조금	8/22℃
남 원	구름 조금	3/21℃
흑산도	구름 조금	15/20℃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0.5m
먼바다	북~북동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0.5~0.5m
먼바다	북~북동	1.0~1.5m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뇌졸중지수: 보통 주의 낮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서	0.5~0.5m
먼바다	남서~서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0.5~1.0m
먼바다	북~북동	1.0~1.5m

	밀물	썰물
목포	04:02 16:55	09:14 21:58
여수	11:17 22:58	04:30 17:20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3(금)	24(토)	25(일)	26(월)	27(화)	28(수)
날 씨						
최저/최고	11/23	11/24	11/24	11/23	11/22	12/21

목포대·순천대·동신대·초당대

약대 유치 '불꽃 경쟁'

광주대, 정원 배정기준 강력 반발

교육과학기술부가 약대 정원을 27년 만에 490명 늘리기로 하는 등 증원 규모와 정원 배정을 위한 심사 기준을 확정, 발표하면서 대학들의 약대 유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 20일 2011학년부터 약대 학제가 6년제로 개편됨에 따라 정원 배정을 위한 심사평가 기준을 확정하고, 오는 12월11일까지 대학들로부터 정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약대가 없는 전남, 대구, 인천, 충남, 경남지역 각 1개 대학에 50명씩 할당하는 등 총 490명을 증원할 방침이다.

교과부 방식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광주를 포함한 서울, 부산, 대전, 강원, 울산, 제주, 전북 등 10곳은 약대 신설이 아예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그동안 약대 신설 또는 정원 증원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학이 대략 30곳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약대 신설 불가능지역으로 분류된 광주 등의 지역 대학들은 시·도별 배정 방식에 반발하며, 약대 신설을 계속 추진키로 해 경쟁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광주에서는 광주대 1곳이, 전남에서는 동신대, 초당대, 목포대, 순천대 등 4곳이 약대 신설을 위해 치열한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 광주대는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교과부의 약대 신설 배정 방식이 현 정부의 지역발전 방안인 '5+2광역경제권' 광역화 기조와도 상치되는 만큼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대는 지난 4월에 약학대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뒤 수십 차례에 걸쳐 정부 부처 방문 및 자체 회의를 통해 준비를 해 왔으나 신청 자격마저 박탈당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약학대 신설을 위해 관련 부지와 예산 300억원을 이미 확보한 광주대는 약학대 설립을 준비해온 타 지역 대학들과 연계해 교과부와 보건복지가족부에 강력 항의하는 한편 약대 신설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남지역에서는 동신대가 지난 6월 4일 지역 최초로 약학대학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 약대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동신대는 현재 한의과대학, 간호학과, 한약재산업학과, 물리치료학과 등 보건의료계열 및 약재 관련 학과가 개설돼 있으며, 전국에 4개의 한방병원과 기초 및 임상 의학·약학 전공 교수를 확보하고 있어 약학과 의학을 연계한 교육이 가능하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어 목포대가 9월 3일 약학대학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발족식을 갖고, 지역 의료기관과 약학대학 실무 실습 및 교육·훈련 및 연구를 위한 협력협정을 체결하는 등 유치전에 가세했다. 여기에 순천대와 초당대가 유치전에 뛰어들면서 4파전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한편 교과부는 12월 중순께 위원회를 구성해 평가를 진행하고 내년 1월까지 배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내년 광주 교사 전입 218명

광주교육청, 50세 미만·1급 정교사 등 기준 마련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원 정원 배정방식 변경에 따라 전남지역 등에서 대규모 교원 이동이 예상되자 광주시교육청이 전입 기준안을 마련했다.

2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학생수 만을 기준으로 교원 정원 배정방식이 바뀌면서 내년 초등 88명, 중등 130명 등 모두 218명을 전남, 전북 등 다른 지역에서 받을 계획이다.

전입지역은 전남에서 초등 80명(유치원 제외), 중등 110명 등 19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전북에서 21명, 제주와 부산이 각 3명과 4명 등이다.

중등 부문은 과목별로 국어 22명, 영어 23명, 수학 18명, 체육 12명, 도덕윤리 7명, 일반사회, 역사, 지리, 화학, 생물 각 5명 등 모두 17개 과목이다.

시 교육청은 또 전입 기준으로 연령은 50세 이상(60년 3월1일생)이거나 도서·벽지 가산점이 있는 교사는 받지 않을 계획이다. 1급 정교사 자격이 없는 경우에도 전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징계 요구나 처분이 진행중인 교사, 교감·교장 자격이 있거나 연수 대상자도 배제하기로 했다. 지병이 있거나 현실 부적응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교사도 제외된다.

다만, 도서벽지 근무 교원이라도 가산점 혜택이 없는 1998년 이후 근무자는 전입 대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도서벽지 근무 교사나 고경력자가 전입하면 광주지역 교사가 승진 등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큰 만큼 불가피한 점이 있다"며 "고경력자의 인건비 부담 등도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전입을 받더라도 사실상 젊은 평교사만을 받겠다는 것이어서 전남교육청과 일선 교사들의 반발 등 논란이 일 전망이다.

전입 기준안은 다음 주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인사는 내년 3월 신학기부터 적용된다. 전남에서의 전출자는 해당 교육청(전남)에서 국가유공자, 부부교사, 노부모 공양, 경력, 실적 등을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

한편, 교과부가 정원 배정을 교사 1인당 학생 수로 묶으면서 전남 714명 등 강원, 전북, 경북 등 농촌지역 중심으로 교사가 많이 줄어든 반면 학교 신설 등이 예정된 광주와 경기, 울산, 인천 등은 늘게 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대규모 경찰서 경무관 서장으로

700명 이상 대상 … 70명 지구대장은 경정

경찰이 치안 현장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자 현장의 중간관리자 직급을 상향 조정한다. 경찰청은 날로 지능화, 흉포화하는 치안 환경에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중장기 계획인 '미래비전 2015'를 수립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경위가 맡는 경찰서 계장은 경감으로, 경감 과장은 경정으로 직급을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우선 70명 이상이 근무하는 지구대의 대장은 경정으로, 순찰팀장은 경감으로 직급을 높이기로 했다. 이는 치안 행정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치안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지역 실정에 맞는 경찰서 모형을 도입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검토된다.

경찰은 정원 700명 이상 대규모 경찰서에는 총경 대신 경무관을 서장으로 임명하거나 1개 자치단체 내에 2~3개 경찰서가 있는 경우 다른 경찰서의 관제탑 기능을 하는 '중심 경찰서'를 지정하는 방안도 연구한다.

하위직 경찰의 사기 진작을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경찰은 경위 이하 계급 명칭을 '경관' 등 하나의 이름으로 통일하는 대신 1~4급 등의 급수를 부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서해해경 여경 공채 117 대 1 '사상 최고'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제2회 해양경찰 공무원 신규 채용'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300명 모집에 모두 5천974명이 응시해 19.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5명을 모집하는 여경 공채에는 모두 585명이 지원해 사상 최고인 11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중국어와 정보통신 분야는 1명씩 모집하는데 107명과 137명이 각각 지원하는 등 여경 분야 경쟁률이 높게 나타났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